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의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에게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711호 현대불교 25
2008년 12월 24일(음력 11월 27일) 수요일 / 불기 2552년
법공양 페이지

25

내가 아는 마음이 천심으로 돌아간다!

넓게 생각을 한다면 작년, 올해, 내년도 없겠지만 그것도 우리가 질서를 지키고 살아나가기 위한 것이겠지요. 그러니만큼 올해도 벌써 기울어서 내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수억갑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것을 잘 생각해 본다면 미래는 훨씬 내다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자기 몸이라는 썩 때문에 자기 종성(種性)을 모르고, 즉 종자란 뜻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자기 썩이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항상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고 그저 천년만년 살 줄 알고 이렇게 살고 있죠. 그러니까 괴로움도 더 많고, 외로움과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 이 모두가 겹쳐서 참, 사는 게 빛나고 하고 허망한 생각도 드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살이를 가만히 따지고 볼 때 항상 과거, 현재, 미래가 없이 초월해서 돌아간다는 것을 안다면 살고 죽는 것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영원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오분향(五分香)을 말했지만, 오분향은 오계(五戒)의 근본적인, 공부하는 이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홉 저녁 예불에 이 오분향을 스님네들이 항상 잊지 않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죠. 그것은 또 스님들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그 오분향을 다 아실 것 같은데, 여러분이 해마다 받는 오계의 의미도 거기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하나 배우기 이전에 지혜로우면 경중경중 점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한 사람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죠. 누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하기 이전에 아버지의 행동을 하며 남편의 행동을 하며, 아들의 행동을 하며 형의 행동을 하며, 아우의 행동을 하며 사위의 행동을 하며, 친구의 행동을 하며 사원의 행동을 하며, 여러 가지를 자동적으로 하고 있죠. 그렇듯이 부처님 법에 어떻게 꼭 집어서 말씀해 놓으신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이렇다, 누구를 만나면 이렇다, 이렇게 말씀해 놓은 게 아니라 자유히 만나고 말하고 듣고 보고 이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유스럽죠?

그런데 예전에도 내가 얘기했죠. 콩을 심어서 콩씨가 낫는데 콩씨는 자기가 제일이라고 하더라 이겁니다. 자기만이 자기인 줄 안다 이거죠. 엄연히 자기 종자가 있어서 콩씨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우면 '아, 콩씨가 없어도 콩씨가 없고 콩씨가 없어도 콩씨가

없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벽을 치면 붓장이 울리듯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 분한테, 요거 한 가지만 딱 말하는 게 아니라 동글러서 말을 하러니까, 동글러서 전체 나가려니까 이것저것, 소소한 것, 뭐든지 거기 포함돼서 들어가게끔 항상 말을 하죠. 팔짱도니 육바라밀이니, 사성제니 오계니 그런 게 모두 거기 포함돼서 들어가게 이치를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 늙어 죽을 때까지도 그 길을 걸지 못할 테니까요. 그래서 물은 강하면서도 유유히 돈다고 합니다. 힘이 없어서 유유히 가는 게 아니죠? 시대를 우리가 좇아가는 것도 아니고, 시대가 우리를 좇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단,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움직여가고, 어떻게 하나하나에 따라서 시대가 바뀌질 수도 있고, 좋게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주인은 우리 마음 이죠.

지구의 근본과 우리의 근본, 우주의 근본, '삼천대천(三千大千)' 이겁니다. '삼천(三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엇을 삼천이랬나 하고 말합니다. 과거 미래 현재를 한데 포함한 것을 삼천이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삼심(三心)이라고도 하죠. 그러나 요거는 한 개체만 보는 견해에서 삼심이라고 하는 것이지 전체를 본다면 '삼천'이라고 하죠. 이것을 삼세간이라고 하는데, 그 삼세간이 어떻게 돼서 일심(一心)으로 돌아가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금 현실에서 돌아가고 있는 자체가 바로 삼세간에서 돌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자체 내에 하세계, 중세계, 상세계가 엄연히 있는 것입니다. 이 삼세계가 여기 우리가 지금 사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세간이라는 그 자체가 있다면, '삼천' 하면 그냥 하나가 됩니다. 한마음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마음을 '천'이라고 합니다. 또 '대천(大千)' 이겁니다. 대천! '삼천대천' 이렇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마음과 저 외부의 한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주간, 대천세계와 더불어 같이 천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천' 하는 것이, 삼천은 벌써 돌아가고, 삼천이 대천하고 포함된 겁니다. 이게, '삼천' 하면, 삼천이라고 한 말은 금방 과거로 돌아가고 과거에서 현실로, 그냥 대천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심이 천심이요, 천심이 일심이라. 내가 아는 마음이 천심으로 돌아간다. 남이 아무도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아는 마음이 천체와 다 같이 돌아가



그림 · 최주현

니 이전 무슨 까닭인가?

여러분이 죽어 보지 않았으니까 죽은 세상을 모르는 거지,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모든 업식에 의해서, 즉 남의 다리 굽어 가면서 살거든요. 허허허... 그런 경우가 많죠. 남이 이렇하면 나도 이렇게 해야 하고, 저렇게 흔들리면 나도 저렇게 흔들리고,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나도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가야 된다 안 된다 하는 말

도 없이 그냥 천연적으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 중심이 없이 그냥 남의 다리 굽어 가면서 가는 거죠. 자기 다리를 시원하게 굽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삼천대천' 이럴 때, 삼심이 일심이면 그 대천과 지금 현실의 삼천이 틀어 안 끼얹어 내 한마음에 응집이 되고 그 마음에 정심(定心)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분향을 얘기할 때에 '누구든지 힘이

없이 해라' 하는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주상(無住相)'이다'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는 것이 무주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착이 없이 주되 아주 똑바로, 똑 부러지게 해 놓는 것이 바로 무주상이자 힘이 없이 하는 것입니다. 똑똑히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고, 깨달은 분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힘이 없이 무주상 보시 하라' 이렇다고 해서 무의미하게 그냥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예가 있었죠. 70년경에, 처음에 이 집을 지었을 때는, 저기 조그만 가갯집 하나뿐이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동묘지였다고요. 그런데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공양주한테 이렇게 말을 했죠. "오늘 도선생이 오실 테니까 저 문 좀 단속해라." 이러곤 무심코 그냥 잤습니다. 그런데 번소문에 이렇게 말을 쳐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 문 쳐 놓은 것을 뜯고선 그러고 들어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야 사람이나 몇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하실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밤중이 되면 할 양으로 숨어 있는 겁니다. 집어갈 거나 뭐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이거 사람들 놀라웠고 큰일났던 말이에요.

그래서 불을 켜고 그 지하실 문 앞으로 갔습니다. 가서, "빨리 나와!" 문을 열어 놓고 말합니다. "빨리 나와! 아, 빛을 준 게 있으면 대낮에 받으러 오지, 어찌 이렇게 밤중에 와서 남 놀라게끔 만들어?" 이러면서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딱 웃는 소리가 나오. 허허허... 웃는 소리가 나더니 아주 젊은 애가 신발을 벗어 들고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부처님 법에 이런 게 있다. 네가 뭐를 흘려 버렸어, 가져가게 돼서 가져갔으면 바로 빛 받을 게 있어서 네가 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빛을 받으러 왔으면, 땀땀하게 앞문으로 들어와서 "나 빛 받으러 왔소." 하든가, 그렇지 못하다면 "스님, 나 이런 게 이렇게 힘든데까 팔 좀 주시오. 폰 좀 주시오." 하든가 아, 그러면 내가 안 줄 사람이 아니라, 있으면 다 털어 줄 사람이지. 빛 갖는 데 무슨 이유가 불겠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날 불끄러미 쳐다보면서 한참이나 있더니 그래요. "흠여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병이 나서, 상당히 급하게 생겨서...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 오는 게 두 번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하하

26면으로 계속

영남불교예술대학 신입생모집

한국 범용법계 전통을 자랑하는 사) 부산아산회의 맥을 이어 종합불교예술로 승화된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보존회에서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영남불교예술대학을 설립하여 수강생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사부대중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모집학과 및 정원

모집학과	강의내용	요일	시간	모집인원
의식 기초반	이론 및 실기	화	2시~5시	30명(6개월)
의식 중급반	이론및실기, 사물다루는법 (대령,관옥,시식등)	수	2시~5시	30명(6개월)
의식 전문반	짓소리,전통예능등 통합반	목	2시~5시	20명(1년)
작법무반	바라,나비,사찰학춤	금	2시~4시	30명(6개월)
국악기반	태평소,단소,대금 (영산회상,청성곡등)	금	4시~6시	30명(6개월)

- ◆개강일: 불기 2553년 기축년 양력 2월 3일 오후 2시
- ◆교육장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1동 159-1 백화도량 관음사내 영남불교예술대학
- ◆접수 연락처(교학처): 051)327-5095 / 010-2314-1279
- ◇ 기숙사방 운영(선착순 우선): 단기 수련 후 심사 거쳐 이수증 발급
- ◇ 성적우수한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우선추천



※ 각종 사찰행사 전문으로 하는 문화재 이수자스님 전국에 배정되어 여법하게 집전해 드립니다. 마음의 힘이 모이면 어두운 길에 환한 등불이 됩니다. (보시금중 일부는 생명 나눔 실천 기금 및 장학기금에 쓰입니다) 010-2314-1279, 051)327-5095

기름값의 1/8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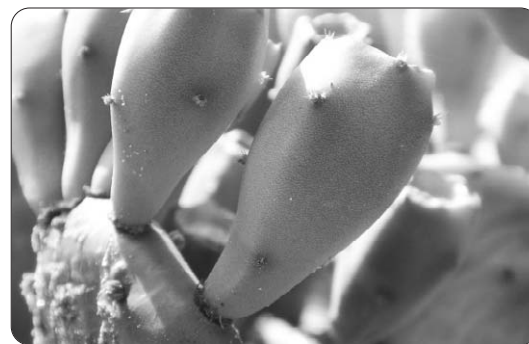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해봉 -

돌고래 슈퍼 에너지
공급원: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상담전화: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otec.com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C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C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